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Sacrificial Rites Traces in Filial Story

저자 (Authors)	심우장 Sim Woo-Jang
출처 (Source)	실천민속학연구 ,(10), 2007.8, 175-203(29 pages)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10), 2007.8, 175-203(29 pages)
발행처 (Publisher)	실천민속학회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04987
APA Style	심우장 (2007).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175-20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30 10: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효행설화와 희생제와의 전통

심우장*

<목 차>

1. 문제제기
2. 희생제의 다시보기
3. 효행설화와 희생제와의 전통
4. 효행설화에서 희생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효행설화의 몇 가지 특징적인 국면을 제의적 전통이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효행설화에는 평범한 논리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럴듯하지 않은 설정이 많고 담론의 스펙트럼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특히 효행설화가 죽음과 관련된 서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생제와의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지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유아살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여 부모의 병을 고친다는 효행설화의 설정은 재앙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에게 희생양을 바치는 희생제와의 메커니즘을 많이 닮아 있다. 또한 일부 불효설화에서 보이는 부모 살해 모티프는 신의 재생을 위해 신적인 존재를 죽이는 희생제와의 전통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효행설화가 고대적인 희생제와의 전통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고대적인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세적인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화하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전제되었던 신이라

* 건국대학교

는 존재를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한껏 강조된 부모라는 존재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가 시대적인 차이로 인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없어 효행설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의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주제어] 효행설화, 불효설화, 희생제의, 희생양, 유아살해, 부모살해

1. 문제제기

『삼국유사』 「효선」편에 나오는 손순은 어린 자식이 매양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자 어머니를 배불리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땅에 묻기로 한다. 물론 땅을 파자 석중이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아이를 묻지는 않았지만, 손순의 행동이 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백 보 양보하여 설령 이러한 설정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¹⁾ 과연 이것이 지극한 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어지는 ‘빈녀 양모’에서는 눈먼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딸이 남의 집에 몸을 파는 행위를 두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하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손순의 선택은 효행심의 발로이기는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역시 『삼국유사』 「효선」편에 나오는 진정사는 집이 가난함에도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한다. 하나 남은 재산인 다리가 부러진 솔을 어머니가 시주를 했을 때도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잘한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어지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불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진정에게 굳이 당장 출가를 시키려는 어머니와 효를 다한 후에 출가하려는 진정사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죽이는 악습이 있었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종 18권 10년 2월 7일(임신) 002 / “자식을 죽이는 악습을 금하도록 전국에 효유하라고 정원에 전교하다”는 경우다.

“어머니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아들된 자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은 간장과 며칠분의 양식을 다 써가지고 가면 천지가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사양하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진정사는 출가를 하게 되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홀로 숨을 거두게 된다.

효행설화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정사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베푸는 자애가 보다 강조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자식의 불도 정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진정사 어머니의 마음이 더 짙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흔히 효행설화에서는 손순의 경우처럼 부모를 위해서 자식 혹은 자식의 자식이 희생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내용이 효행설화의 자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굳이 『효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삼국유사』의 향득은 허벅지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하여 효행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마도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빈녀양모>에 나오는 빈녀의 어머니와 같이 슬픔에 잠기지 않았을까? 또한 이야기판에서 효행설화를 구연해 달라고 하면 가끔씩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악습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효담론의 차원에서 보면 늙었다는 이유로 살아 있는 부모를 버리는 끔찍한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승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효행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효담론은 평탄하지 않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과연 이것이 효인기를 묻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가 하면 역으로 부모의 희생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효담론의 언저리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상과 같이 효행설화에는 평범한 논리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럴듯하지 않은 설정들이 특히 많이 있고 담론의 스펙트럼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어서 효행설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화가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제의적 전통에 기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흔히 제의적 전통에서는 논리 이전의 초월적인 의미 맥락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이 지점에 대한 주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리공주>와 같은 작품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희생제의 자체가 지금의 시선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제의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집단 폭력의 이미지를 찾아내려 하거나²⁾, 효 이데올로기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의식이 지니는 부당함³⁾ 또는 그 속에서 여성들의 주요한 역할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효행설화에 접근하려 한다. 효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에서 제의적인 희생의 흔적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 제의적 전통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한다. 이는 제의적 전통에서 효행설화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효행설화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⁵⁾

-
- 2) 이는 르네 지라르의 관점(희생제의는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물에게로 향하게 한다.)을 효행설화에 적용한 것이다.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한국고전연구』 7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3) 윤인선, 『『바리공주』의 희생효와 심리적 서사구조』, 『한국언어문학』 47집(한국언어문학회, 2001).
 - 4) 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6집(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1996).
 - 5)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1, 『국어국문학』 93호(국어국문학회, 1985); 박영주,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 『도남학보』 26집(도남학회, 1997); 최래옥, 「한국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 『한국민속학』 10집(민속학회, 1977); 김동기, 「한국 효행설화의 연구」, 『어문연구』 10집(어문연구학회, 1979);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월인, 2002); 임재해, 『순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1호(신라문화학회, 1990).

2. 희생제의 다시보기

효행설화의 제의적 전통과 관련해서 희생제에 주목하는 것은 효행설화가 많은 경우 죽음과 관련된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진정사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에 어머니가 죽었고, 손순 이야기에서는 아이를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면, 진정사 어머니나 손순 아이의 이러한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희생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효행설화와 희생제의를 연관시켜 논의하려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희생제의를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 1) 위계가 뚜렷한 사회가 존재하다.
- 2) 질서가 무차별화되는 위기가 도래하다.
- 3) 희생양의 징표가 드러나다.
- 4) 희생양에게 박해가 가해지다.
- 5) 희생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다.
- 6) 희생자가 신성화되다.

제의가 신을 위한 의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희생제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경우는 초점이 ‘희생양’에 맞춰져 있어서 희생제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인 의미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의는 신앙공동체의 성원과 대상신 사이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⁷⁾ 예를 들어 ‘희생양에게 박해가 가해지

6) 르네 지라르의 견해를 오세정(앞의 논문, 355쪽)이 정리하였다.

7) 천혜숙은 당신화를 이해하면서 이와 같은 관점을 표명했다(천혜숙, 「민속신화의 범주

다'의 경우라면 '희생양을 신에게 바치다' 정도로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이 과정이 공동체와 대상신의 실질적인 접촉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제의는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의 실존을 전제로 하는 종교적 행위이다.⁸⁾ 공동체적 삶에서 신의 실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공동체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내적 세계에서 발생한(혹은 발생할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 세계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 외적 세계는 내적 세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신)'가 있는 공간으로 상정된다. 내적 세계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면서도 외적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함께하는 외부자'로 부르기로 한다.

외적 세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외의 소통은 두 세계가 워낙 깊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앙공동체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구성원, 즉 일반적인 구성원과는 무엇인가 많이 다른 특이한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구성원들과는 삶의 공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존재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따로있는 내부자'라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제의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따로있는 내부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외부자'인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희생제의를 다시 보면 그것은 따로있는 내부자의 '죽음'(혹은 '죽음'에 준하는 상황)을 매개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소통하려

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 『인문과학』 28집(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200쪽.

8) 황경숙, 「사랑도 옥녀봉설화의 형성과 희생제의적 성격」, 『도남학보』 15집(도남학회, 1996), 3쪽.

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굳이 이러한 소통을 원하는 것은 내적 세계에 심각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는 문제 상황의 해결이 힘들 때 초월적 존재가 있는 외적 세계와의 소통을 원하게 되는데, 단절된 두 세계를 넘나들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희생양이 없을 경우, 공동체는 문제 상황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 그를 ‘따로있는 내부자’로 지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를 외적 세계의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죽이는 절차에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당 집이나 동굴 혹은 포악한 짐승들이 즐비한 숲으로 그를 내몰 수도 있다. 따로있는 내부자를 상징적인 외적 세계로 추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적 세계의 초월적 존재와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만남만으로 공동체 내부의 문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효행설화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따로있는 내부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다. ‘따로있다’는 것은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⁹⁾ 전쟁포로나 노예, 아이, 처녀, 총각, 신체장애자들이 낮은 것으로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듯이 왕은 높은 것 때문에 사회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둘 다 희생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들은 일반적인 공동체 구성원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따로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한 공동체가 새로운 문화 질서 속에서 재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¹¹⁾, 그 세부에 있어서는 둘을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¹²⁾

9)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 1997), 26쪽.

10) 위의 책, 25쪽.

11) 위의 책, 385쪽.

12) 르네 지라르(위의 책, 25쪽)는 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이해했지만 프레이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2(삼성출판사, 1990), 258쪽]는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 효행설

대체로 낮은 것으로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는 내부자들의 죽음은 제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적인 권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이 섭취해야 하는 물질적인 혹은 성적인 양분으로서의 제물이다. 그들의 피와 심장을 자양분으로 받은 신은 다시 원래의 에너지를 회복하여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는 그만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희생양의 죽음은 신을 위한 죽음이며, 신과의 결합을 위한 죽음이다.¹³⁾ 높은 것으로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는 내부자들의 죽음은 신의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쇠약해진 신이 권능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을 죽게 함으로써 그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마치 식물이 겨울이라는 죽음의 시간을 지나 봄이 되면서 소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⁵⁾

- 1) 함께하는 외부자(신)+따로있는 내부자 → 새로운 함께하는 외부자(신)
- 2) 함께하는 외부자(신) → 따로있는 내부자 → 새로운 함께하는 외부자(신)

첫 번째 경우는 보편적인 설화에서 자주 보이는 희생제의의 형태다. <두꺼비 보은> 설화나 <벽골제 전설>에서와 같이 희생양인 처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태종우>와 같은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극심한 가뭄이 왕의 부덕한 탓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경우이다.¹⁶⁾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옛 부여의 풍속에 가뭄이 들고 날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갑자기 그 왕을 책

화와 관련해서는 프레이저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이다.

- 13) 이 경우 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희생양이 신성화된다.
- 14) 르네 지라르는 “죽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 하였다. 앞 책, 386쪽.
- 15) 이 경우 희생물은 극도의 신성함에 의해 유지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 16) <벽골제 전설>과 <태종우>에 대해서는 박정세, 『희생설화와 희생양상』, 『한국민속학』 17집(민속학회, 1984)에서 다룬 바 있다.

망하는데, 혹 비뚤이 마땅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희생제의의 과정을 제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해 보았다. 사실 희생제의의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효행설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희생제의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취했을 뿐이다.

3.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효행설화 속에는 제의적인 희생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제물로서의 희생양의 죽음이 드러나 있는 효행 설화로는 <손순매아>를 들 수 있다. 아이가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자 손순은 아이를 땅에 묻기로 결심한다. 명분은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손순을 세상에 있게 만들어 준 창조주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희생제의에서의 신적인 존재가 어머니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손순이 아이를 땅에 묻으려는 목적은 어머니를 배불리 드시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¹⁷⁾ 이렇게 보면 아이 자체가 어머니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음식으로서의 구실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죽음이 어머니를 배부름에 이르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의적인 희생의 의미를 충족시켰다고 하겠다. 물론 뒷부분의 서사에서 급격한 반전이 있어 실질적으로 아이가 죽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를 죽이려 했다 는 점은 변함이 없다.

17) 且埋此兒，以圖母腹之盈。

<동자삼> 이야기는 좀 더 과격하게 직접적이다. 병이 든 노모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약재가 바로 아이다. <손순매아>에서는 어머니를 배불리 드시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묻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아이를 직접 먹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아이를 삶아 먹고 어머니가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은 희생제의의 전통을 계승한 이야기로 보지 않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러한 과격한 이야기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제의적인 전통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알고 보니 아이가 아니라 동자삼이었다는 후반부 반전의 덕이 크다. 비슷한 이야기인 노망을 해서 손자를 닭으로 알고 술에 넣어 삶아 먹은 시부모 이야기에서는 후반부의 반전이 없어 제의적인 죽음의 양상이 그대로 노출된 예라고 하겠다.¹⁸⁾

<향득> 이야기도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허벅지 살을 베어서 봉양했다고 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존재인 부모가 거의 굶어죽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제의적인 상징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부모가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소생시켰다는 식의 효행설화도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¹⁹⁾ 살과 피는 제의적인 희생물이 제물로 기능할 경우 가장 중시되는 신체의 일부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²⁰⁾ 이렇게 보지 않고는 다음과 같은 <기계유씨 효자>의 끔찍한 행

18) 여기서 아이들의 죽음이 곧 제의적인 죽음이고 아이들은 제물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다른 효행설화와 비교를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홍시를 구한 효자> 이야기에 대해서도 <동자삼> 이야기와 비슷한 전반부 상황 설정이 제시된다. 병이 든 부모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한겨울에 홍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효자가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홍시를 구하게 되는데, 그 홍시는 다름 아닌 제사상에 제물로 올려진 홍시이다. 결국 그것을 먹고 부모가 원기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야기에서 홍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의 죽음을 제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9) 소설가 李箱은 이 설화의 斷指에 대해서 “일종의 무지한 야만적 사실”이며 “너무나 독한 도덕행위”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의적 희생의 전통을 개입시켜 이해하지 않는다면 흔히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최래옥, 앞의 논문, 118쪽).

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날마다 단을 모으고 단 앞에 와서,

“우리 아버지 병을 낮게 유명한 의원을 좀 보내 주십사.”

그래 한 달을 두고 빌었다. 결과 어떤 의원 하나가 왔는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아무 약도 필요가 없고, 사람의 뼈와 살을 갈아서 그것을 먹어야 낮지, 그렇잖으면 안 낮는다.”

그 그러. 당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갈아가지고 드렸대. 그것을 잡숫고는 씻은 듯이 나왔대.²¹⁾

<심청>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심청은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음의 길에 나선다. <바리공주> 이야기에서는 따로있는 내부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딸이라는 이유로 함께하는 공간에서 쫓겨나 따로 있게 된 바리공주가 병든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의 공간인 저승으로 여행을 한다는 설정은 희생제의의 전통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장승이라는 외부자를 만나 결연을 맺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설정은 따로있는 내부자와 함께하는 외부자의 결합이라는 희생제의의 의미를 적실하게 드러낸 경우라 하겠다.

<부모에 순종하는 효자>²²⁾ 이야기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다. 부모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효자로 잘 키워 불효자를 둔 사람 앞에서 효성을 시연하는데, 하필이면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소를 지붕으로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혹여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효성을 증명하는 시험이어야 하는 어떠한 정합성도 찾기

20) 조지프 캠벨, 이진구 역, 『동양신화』(까치, 1999), 189쪽, 프레이저, 앞의 책, 92쪽 참조.

21) 『구비대계』 5-2, 488쪽, <기계유씨 효자>.

22) 대표적인 예로는 『구비대계』 4-5, 261쪽,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자>가 있다.

어렵다. 여기서 아래의 예를 참고해 보기로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제물은 불에 그슬려 살해되었다. 지붕과 같이 양쪽이 경사진
나지막한 대(臺)가 만들어진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의 몸부림을 막기 위
해서 손발을 묶는다. 그리고 불을 지펴서 뜨거운 햇불을 제물에게 갖다 대어 될
수 있는 대로 제물이 오랫동안 그 경사를 오르내리게 한다. 눈물을 많이 흘릴수
록 비의 양도 많아지리라는 것 때문이다.²³⁾

여기에서는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는 인신공희의 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 농사를 위해서는 비를 많이 내리게 해야 하는데,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쳐 지붕과 같이 경사진 곳을 오랫동안 오르내리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인간 제물이 소나 돼지처럼 인간의 삶과 친연성을 가진 동물로 대체되는 현상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간 제물을 소로 대체해 보면 <부모에 순종하는 효자> 이야기에서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는 주문은 지극히 제의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랑도의 <옥녀봉 전설>을 보면 이것의 제의적인 의미가 보다 확실해 진다.²⁴⁾ 근친상간 모티프를 지니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딸을 흠모한 아버지는 딸의 요청에 따라 소의 탈을 쓰고 소의 울음소리를 내며 소처럼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된다.²⁵⁾ 산봉우리의 형상을 지붕의 형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인신공희가 동물로 옮겨가고 있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부모에 순종하는 효자> 이야기에서 소를 지붕 위로 올리는 행위는 희생제의를 전통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연원을

23) 페이지, 앞의 책, 95~96쪽.

24) 황경슈(앞의 논문)은 이 전설의 희생제의적 성격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25) 소의 형상을 하고 산에 오르는 행위는 격리되어 있던 장소에서 제의의 장소로 제물을 옮겨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위의 논문, 200쪽).

따져 본다면 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인간을 대체하는 희생물(소)을 바치는 제의적인 행위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자식 혹은 자식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효행 설화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후에 살펴볼 내용은 좀 다르다. 앞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문제의 상황에서 부모가 희생을 당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진정사> 이야기를 보자. 효와 불도의 딜레마에서 불도를 포기하고 효를 선택하려 하는 진정사에게 어머니는 역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카드를 내민다. 물론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기희생이고 표면적으로 제의성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 희생제의를 흔적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應化聖典』에 나온 이야기다.

왕석 바라내국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 다만 한 아들을 두었으나, 그러나 이 한 아들은 많은 아들을 두었으며, 그 집이 빈궁한대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 부모를 산채로 땅에 묻고, 아이들을 기르니, 이웃 사람들이 물어 말하되, 그대의 부모는 어디 계시는가 하니,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 부모는 나이 늙으시어, 마땅히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므로, 내 곧 이를 묻고, 부모의 식량으로써, 갈라 아이들을 먹여 기르고자 하노라 하니, 다른 집들이 듣고, 이것은 옳은 이치라 하여, 이와 같이 전전하여서 바라내국에 두루 널리 곧 범이 되니라. (후략)…26)

얼핏 보면 <손순매아>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는 달라진다. 손순이 자기 아이를 묻는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은 거꾸로 부모를 묻는 선택을 한 것이다. 만약 <손순매아>가 제의성을 갖는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이 이야기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처럼 부모를 신적인 존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26) 김희진, 「한국 고대의 효 사상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18쪽에서 인용.

빈궁한 상황에서 부모를 묻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 신을 죽이는 행위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손순매아>가 희생제의에서 제물로서의 희생양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신의 죽음 혹은 신의 대리자의 죽음이라는 희생양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급한 추론일 수 있겠지만 특정 효행설화가(사실 이것은 효행설화가 아니라 불효설화라는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제의적 희생이 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서사 구조상의 고난 상황에서 부모의 죽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긴요한 자료가 <고려장 설화>일 것이다.²⁷⁾ 일정한 나이(대개는 70)를 넘어서는 노인들을 자신의 영역이 아닌 마을의 바깥이나 산에 버려서 죽게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생산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노인을 공동체의 영역 밖으로 내버린다는 설정은 따로있는 내부자를 만들어 죽이는 행위로서 권능이 약화된 신을 죽이는 제의적인 행동을 연상케 한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제의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특별한 효성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서 그 법을 어기고 부모를 살려두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국가적인 난제를 풀게 되어 비로소 법을 폐지하고 늙은 부모를 잘 봉양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수께끼와 같은 난제인데, 원 텍스트라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 <잡보장경> ‘기로국조’를 보면 아홉 가지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²⁸⁾ 그 중에서 불교적인 것을 제외한 네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똑같이 생긴 뱀의 자웅을 가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흰 꼬끼리의 무게를 알아내는 것이고, 셋째는 네모반듯한 박달나무의 아래 위를 알아맞히는 것이

27) 이에 대해서는 이수자, 「고려장 설화의 형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98집(국어국문학회, 1987) 참조.

28) 위의 논문, 136쪽.

고, 넷째는 두 마리의 똑같은 암말이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는 것이다. 셋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것의 다름을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측량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다. 단순히 거대하다고만 말하고 말아야 하는 코끼리의 몸무게를 정확히 달 수 있다는 것은 그 코끼리의 다름을 표시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면 넷은 모두 사물들의 제각각 다름을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수수께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체의 질서는 차이가 무화되면서 급격하게 와해되고 차이를 다시 복원해야만 다시 질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르네 지라르식의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나이가 들어 버려져야 했던 노인이 아직도 세세한 사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되돌릴 수 있는 신이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여 버려졌던 노인이 사실은 아직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신적인 힘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이는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층까지의 위계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꼭지점인 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건재함을 보여주어 아버지를 죽이는 풍습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화로 볼 수 있다.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작품은 불효설화의 하나인 <시아버지를 살찌워 팔려는 며느리> 이야기다.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며느리에게 남편이 묘수를 쓴다. 살찐 사람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시아버지를 살찌워서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 시아버지를 돈을 받고 내다 팔 수 있으니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는 몇 개월을 열심히 봉양하기 시작한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아버지가 자꾸 며느리를 칭찬하는 바람에 이전과는 다른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결국에는 며느리가 개과천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인 것은, 시아버지를 장에 내다 판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이 도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하필이면 살을 찌워서 팔아야 한다는 설정과 맞물려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종종 산 제물은 제물로 바쳐지기에 앞서 수 년 동안 길러졌다. 그들은 성화된 인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극도의 애정을 갖고 취급되며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았다.²⁹⁾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람이 속죄양일 수가 있다. …(중략)… 동부 코카서스의 알바니아족은 달[月]의 신정에 다수의 신성한 노예를 유치해 두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영감(靈感)을 얻어 예언하였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영감과 광기 증세를 나타내고, 앞에서 말한 밀림 속의 곤드족처럼 숲속을 혼자 배회하면 대사제는 그를 신성한 사슬에 붙들어 매어 1년 동안 사치스럽게 부양한다. 1년이 거의 다 끝나면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끌고 나간다. …(중략)… 사람들은 그 인간제물이 신령을 갖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의 죄와 불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해된 인신(人神; man-god)의 뚜렷한 한 실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³⁰⁾

그들은 그 포로를 우상에서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들은 그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우상의 이름을 그에게 붙였다. 그리고 그가 그 우상을 표현한다고 말하면서 우상과 똑같은 장식으로 그를 치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우상에 대한 것과 똑같이 그 제물을 숭배하고 존경하였다. 그런데 그 제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곳에 따라 다르고 1년이기도 하고 6개월이기도 하고 혹은 그보다 짧기도 하였다. 그동안에 그는 먹고 마시고 즐겼다. 마을의 길을 통과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과 환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

29) 프레이저, 앞의 책, 94쪽.

30) 위의 책, 258쪽.

를 부탁하고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한다.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중략)… 축제가 시작될 쯤이면 그는 살이 찌게 된다. 사람들은 그를 죽여 찢어서 먹는다. 이것이 그를 제물로 바치는 엄숙한 절차다.³¹⁾

희생제의에서 특히 성화된 인간, 즉 신적인 사람이 희생양일 경우는 대개 일정 기간을 두고 사치스럽게 부양되는 예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제물이 신령을 갖게 된다고 믿음으로써 그는 인신(人神)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를 죽이는 것이 신을 죽이는 모의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양의 핵심은 잘 먹이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함으로써 제의가 시작될 때쯤이면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위의 설화를 보면 시아버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는 희생물을 제의에 바치는 행위와, 살이 붙게 봉양하는 것은 희생양에게 신령이 깃들도록 부양하는 것과 전주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개과천선하는 반전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기본적인 서사의 골격이 신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희생제의의 과정과 무척 닮아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내다 판다는 설정은 그것이 설령 개과천선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격함이나 비현실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이야기에서처럼 며느리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 계속해서 며느리를 칭찬함으로써 개과천선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듯하지 않은 설정을 개입시킨 것은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제의적인 전통에 기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의 죽음 혹은 신의 대리자의 죽음을 통한 재생이라는 희생제의의 맥락과 닿아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불효에 관한 작품이 하나 더 있다. <부모 때리는

31) 위의 책, 277쪽.

불효자> 이야기다. 부모가 늘그막에 아들을 낳아 귀하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는데 그것이 과하여 어린 아들이 부모를 때리는데도 귀엽다고 웃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장성하여서도 그것이 정말 부모님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부모를 열심히 때렸다는 것이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라는 설정은 그렇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부모는 늙어 힘이 약해지고 자식은 장성해서 힘이 세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계속 맞기만 하던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한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개과천선하도록 했다는 마무리도 깔끔해 보인다. 그런데 일부 각편에서는 그렇게 때리는 자식을 피하다가 부모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재인: 어어. 그래가주구 커도 그렇게 어머니 때리고, 아버지 때리고. 그제 일
짜면 자꾸 때려싸서, 하루는 어캐간 뒤에 때림 맞으니 아프니까 아궁
지에 가 숨었데.

심우장: 예.

강옥희: 아궁지가?

이재인: 거가불비, 옛날에 거가불비 때눈 거가불비.

강옥희: 음.

심우장: 예.

이재인: 거가 한 늙은이가 하나씩 들어앉아서 숨었는데.

청중 일동: 하하하하.

이재인: 디지 돌아가꼬 때릴라고 보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

강옥희: 하하하.

이재인: 아이고 어디 갔으면 오겠지 불이나 때 놓자, 이래니까.

청중 일동: 하하하하.

이재인: 그 때 마침 다 죽었드래.³²⁾

이렇게 부모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신화적 원형에 더 가까운 것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효행설화의 자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과천선하여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변개를 가지고 왔지만 실은 부모를 때리는 행위가 결국은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제의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할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아래에 있다.

어느 부인이 마흔 살에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죽자 금지옥엽 길렀는데 커가면서 그는 욱하고 싸움하는 것만 늘어 어미의 흰머리만 늘게 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땅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밥을 내다주면, 늦으면 늦는다고, 이르면 이르다고 죽으라며 어미를 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면서 두루미가 새끼를 먹이는 것을 보았고, 뒤에는 그 새끼가 어미 봉양하는 걸 보고, 나는 금수보다 못했다고 반성했다. 땀 흘리며 어머니가 밥을 내오는 것을 보고 소 채찍도 놓지 않고 맞으러 달려가는데 어머니는 밥이 늦어서 때리러 오는 줄 알았다. 도망을 가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大柳樹에 머리를 부딪고 죽었다.

아들은 울다가 柳樹를 베어가지고 와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서쪽의 조상신위 옆에 모시고, 節日이 되면 음식을 해서 올리며 悔恨했다. 음식도 끊고 잠도 못 자 죽어가면서 그는 부인을 불러 매년 節日에 꼭 어머니께 봉양하라 이르고 숨을 거두었다. 며느리를 시집온 이래 남편이 시어머니 때리는 것만 보아서 그도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남편의 부탁을 입으로만 대답했다. 살아서도 고생시키더니 죽어서 남편도 데려갔다며 바늘로 木頭人을 찌르고 손을 때리곤 했다. 어느 날 또 때리는데 돌연 부엌에서 불이 났다. 며느리가 타 죽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木頭人만은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은 柳樹는 神樹라서 불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만주족은 柳樹를 柳

32) 심우장,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구비설화 이야기판의 구조와 특성』(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280쪽.

樹訥이라고 숭배하게 되어 집안의 조상신 옆에 모시게 되었다.³³⁾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신화적인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얻어맞다가 결국 나무에 부딪쳐 죽는다는 설정과 죽어서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는데도 아들에 이어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얻어맞았다는 설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되면 부모를 때리는 행위 또는 그것의 형상인 인형을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버릇없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제의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부모를 때린다는 것은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적인 존재를 때리는 행위로 이해되고 이것은 신적인 존재의 죽음에 관한 희생 제의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해충(海葱)과 야생 무화과나무와 그 밖의 야생 나뭇가지로 그의 생식기를 일곱 번 때린다. 그 때 어떤 특수한 가락을 연주하는 피리소리가 울린다.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를 숲의 나무로 쌓아 올린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운 다음 그 재를 바다에 던진다.³⁴⁾

만일에 농작물이 농부의 기대만큼 수확되지 않으면, 농부는 그것을 대지의 결실을 주관하는 신의 생식력을 자극시키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돌린다. 그리고 그 신은 어떤 마술에 걸렸거나 늙어서 쇠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다시 소생하여 자신의 젊은 정력을 정제된 자연에 쏟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한 의식 절차를 거쳐 그의 대표로서 살해되었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마무리우스 베틀리우스가 회초리로 맞는 이유와, 카이로니아의 의식을 거행할 때 노예

33) 『만족삼노인고사집』(춘풍문예출판사, 1984), 103~106쪽; 이종주,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희』, 『구비문학연구』 4집(한국구비문학회, 1997), 49쪽에서 인용.

34) 프레이저, 앞의 책, 268쪽.

가 아그누스 카스투움이라는 인형이 막대기와 돌로 공격받는 이유와, 그리고 바빌론에서 신의 역을 맡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신성한 고행자의 고통을 더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악한 힘을 결정적인 순간에 제거하기 위해서이다.³⁵⁾

생생한 푸른 나무와 가지로 제물의 생식기를 때리는 것은 그 나무와 가지의 결실력을 남자나 여자에게 옮김으로써,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악한 힘을 제거시킴으로써 그들의 생식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마술이라고 극히 자연스럽게 설명된다.³⁶⁾

제물들을 때리는 것과 살해하는 목적은 주로 그리스의 여름의 염천 하에서 시들기 시작하는 식물의 힘을 자극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³⁷⁾

첫 번째 예에서는 희생양을 때리는 행위와 그를 다시 불에 태워 죽이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부모를 때리다가 결국 아궁이에서 불태워 죽이는 앞서 제시한 각 편의 내용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희생양이 되는 신적인 존재를 때리는 것, 또는 그것의 대신이라 할 수 있는 인형을 때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들의 힘을 소진시킨 사악한 힘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힘을 자극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예를 통해 보면 이는 식물 정령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따라서 <柳樹訥訥> 이야기에서 나무에 부딪쳐 죽음을 맞이하는 행동이 상징하는 바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를 때리는 행위, 즉 (그 부모가 제의에서의 신적인 존재를 상징한다면)

35) 위의 책, 269쪽.

36) 위의 책, 271쪽.

37) 위의 책, 271쪽.

신적인 존재를 때리는 행위는 신을 살해하는 행위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의식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제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효행설화 유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희생제의를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이 희생을 당하는 모티프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과 부모가 희생을 하는 모티프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많은 이야기들에서 희생제의를 전통과 관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왜 효행설화에 이러한 희생제의를 전통이 강력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이해할 차례이다.

4. 효행설화에서 희생의 의미

신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따로있는 내부자(희생양)의 관계가 전형적인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한다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손자의 관계는 ‘효’ 이데올로기가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전형적인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한다. <손순매아>는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된 모습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전제되었던 ‘신’이라는 존재를,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한껏 강조된 ‘부모’라는 존재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기를 있게 한 원인이며 그 때문에 받들어야 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점에서 신과 부모는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³⁸⁾

38) 『孝經』 「聖治章」에서 “하늘과 땅에서 받은 만물의 성품 중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심청> 이야기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효행 이야기의 구조이다. 문제는 심청의 죽는 행위가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효행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청은 인신공희로 바칠 처녀를 구하는 선인들에게 몸을 팔아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심청의 죽음은 신을 위한 죽음이면서 부모를 위한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심청의 죽음은 인신공희의 제물이면서 아버지를 위한 효행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적인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세적인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희생제의는 공동체 내의 허물어져 버린 위계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의식이다. 신의 권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위계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중세적인 윤리 의식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를 늙음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는 배고픔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야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이 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고대적 사유가 부모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중세적 사유와 만날 수 있었던 지점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종교서사의 가족서사로의 치환 혹은 편입은 이미 고대 건국신화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³⁹⁾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문제는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편되는 과정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하늘(신)과 부모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9)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 88쪽. “왕국의 정권 교체가 부자 사이의 싸움으로 나타난 것이 고대적인 사고방식이다.”고 했다.

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어긋남이다. 부권을 신권과 동일한 위상으로 올려놓고 종교서사를 가족서사로 옮겨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부권이 고대적인 신권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미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고대적인 신성이 약화되고 그 빈 곳을 ‘효’라는 이데올로기가 대체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형태의 자리바꾸기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희생제외에 포괄되어 있는 죽음의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게 된다. 강력한 신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희생으로서의 죽음이 ‘효’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는 정당화해내기에 벅찬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지적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음 속에는 분명히 죽음도 있지만 또한 생명도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차원에서 볼 때 죽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 이렇게 해서 죽음은 진정한 신성, 즉 가장 이로운 것과 가장 해로운 것이 결합되는 곳으로 보일 수 있다.⁴⁰⁾

진정한 신성이란 가장 이로운 것과 가장 해로운 것의 결합이며, 죽음이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이로운 것으로서의 ‘생명’(재생)에 의해 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효행 설화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신성을 대체하기에는 이데올로기의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효행 설화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럴듯하지 않음은 이러한 어긋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효행 설화는 평범한 논리로 쉽게 납득되지 않은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희생제외의 전통을 중세적인 윤리적 서사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어긋남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빈녀가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함에도 불구하고

40) 르네 지라르, 앞의 책, 386쪽.

고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 것은 몸을 관 행위의 해로운 점이 효행의 이로움과 결합되어 무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로움은 이로움으로 해로움은 해로움으로 그대로 남아 융합되지 않아서 두 모녀는 부동켜안고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⁴¹⁾ <심청> 이야기에서 심청이 매신을 하고 부녀가 이별하는 중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심청을 출친대효로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를 불효녀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것도 심청의 죽음이 갖는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융합되지 않고 분화되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⁴²⁾

희생제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효행 설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상반된 의미 지향의 어색한 동거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로움과 해로움이 대등하게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죽음의 해로움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양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를 묻어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석종이 나타나 죽이지 않았다던가, 아이를 가마솥에 넣고 찜찜 끓였는데 알고 보니 동자삼이었다던가, 호랑이에게 아이를 던져주었는데 다시 살아왔다던가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 없으면 해로움뿐만 아니라 이로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라져 버렸던 ‘신성’을 신이한 이적으로 보충해주거나 서사 자체를 공적 영역의 것으로 확대시켜서 인위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석종이나 동자삼과 같은 이적이 제시되거나, 손순 이야기나 빈녀 이야기에서처럼 이들의 효성을 전해들은 왕이 커다란 보상을 내린다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죽음의 이로움을 약화시키고 해로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41) 김균태, 『희생담의 서사적 구조연구』, 『어문논지』 45(충남대 국문과, 1985).

42) 심청이 효녀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집문당, 1986)].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재생’이라는 제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음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이것은 신이나 신의 대리인의 죽음을 매개로 하는 희생제의를 전통을 계승한 효행 설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의 죽음이 더 이상 신의 재생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계승한 부모의 죽음도 더 이상 이롭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인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불효자의 행위를 비난하고 개과천선시켜 효자로 만들어주는 불효자 이야기가 효행 설화의 언저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행설화의 영역 내에서만 희생제의를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이를 좀 더 확장시켜보자. 고대의 신화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제의적 죽음이 갖는 신성이 약화되는 것은 꼭 효행설화에서만 의 일은 아닌 것 같다. 당연히 죽음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융화되지 않고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서사의 주요한 갈등으로 활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 줄기차게 희생양을 죽이려는 캐릭터와 희생양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려는 캐릭터로 양분되어 치열하게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두꺼비 보은> 설화를 들 수 있다. 희생제 의라면 신적인 존재인 지네와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처녀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두꺼비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렇게 해서 처녀를 죽이려는 지네와 지네로부터 처녀를 구하려는 두꺼비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칠성풀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을 죽이려는 계모와 죽어서도 아이를 보호하려는 친모의 대결이 작품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이야기 중 할아버지를 버리는 데에 따라갔던 손자가 버리려는 지계를 가지고 옴으로써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버지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손자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융화되어야 하는 죽음의 이로움과 해로움

이 분화되면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이로움을 해로움이 물리치게 되어 제의적인 죽음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맺음말

사실 효행설화가 모두 희생제의의 전통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다만 희생제의와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설화들만을 임의적으로 논의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물론 추론의 과정이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효행설화의 존재 양상을 과도하게 희생제의 쪽으로 끌어들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효행설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희생제의의 전통과 연결시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구비설화가 적층문화인 한 제의적인 전통은 개별 설화의 면면 속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설화들은 제의성이라는 바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들이 얼마나 가능하고 어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1,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1985.
- 김군태, 『희생담의 서사적 구조연구』, 『어문논지』 4-5, 충남대 국문과, 1985.

-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 김동기, 「한국 효행설화의 연구」, 『어문연구』 10집, 어문연구학회, 1979.
- 김희진, 「한국 고대의 효 사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영주,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 『도남학보』 26집, 도남학회, 1997.
- 박정세, 「희생설화와 희생양상」, 『한국민속학』 17집, 민속학회, 1984.
-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심우장,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구비설화 이야기관의 구조와 특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한국고전연구』 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윤인신, 「『바리공주』의 희생효와 심리적 서사구조」,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 이수자, 「고려장 설화의 형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 이종주,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희」, 『구비문학연구』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임재해, 「손순매야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1호, 신라문화선양회, 1990.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천혜숙, 「민속신화의 범주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 『인문과학』 28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 최래옥, 「한국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 『한국민속학』 10집, 민속학회, 1977.
- 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6집,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1996.
- 황경숙, 「사랑도 옥녀봉설화의 형성과 희생제의적 성격고」, 『도남학보』 15집, 도남학회, 1996.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 조지프 캠벨, 이진구 역, 『동양신화』, 까치, 1999.
- 프레이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2, 삼성출판사, 1990.

Sacrificial Rites' Traces in Filial Story

Sim, Woo-Jang*

This study is prepared to understand newly some filial story's special aspect from sacrificial rites' point of view. Filial Story has many motives pretty hard to swallow and contrary to logic. Specially, filial story has many decease narrative. Because of this point, we can link filial story to sacrificial rites.

The process that one kills one's children, infanticide motive, to rescue one's parents from their sickness or hunger, bears some resemblance to sacrificial rites' mechanism that community kills scapegoat to rescue it from misfortune. We can consider that the motive to kill father or mother in non filial story, is related to sacrificial rites' tradition to kill god to revive him.

The fact that filial story succeeds to sacrificial rites' tradition, tells us that ancient religious communication is transformed to medieval ethical communication. We think that parents to be emphasized in the Middle Ages, would substitute for ancient god. But this change is not accomplished perfectly. Because of it, we experience a lot of collisions of cognition.

[Key-words] filial story, non filial story, sacrificial rites, scapegoat, infanticide motive, the motive to kill father or mother

* Konkuk University